



[라이프] 유통업계 월드컵 마케팅 '후끈' 나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공업용수 문제 해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속도낸다

SK-여주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 '120兆'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걸림돌 해결... 클러스터 착공 탄력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공업용수 문제가 해결됐다.

SK와 여주시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이충우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시

그동안 관로설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여주시와 SK 그룹 간의 상생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충우 여주시장도 지난 7월 5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국가와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분명히 같이 뜻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면서 '상생이란 단어에 맞게 한쪽의 희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상생방안을 강조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여주시가 관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상생방안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SK하이닉스 자사 협력업체 입주 지원,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m² (약 135만 평) 규모의 부지에 120조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공장(팩)을 건설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19년에 투자

를 발표했지만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용지 조성 공사에 돌입하지 못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가 그동안 요구해온 상생방안에 대해 SK와 경기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지만 관로설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용인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용인시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큰 산을 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용수문제가 해결된 만큼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전통시장에서 ‘당일·새벽배송’ 이용하세요”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향토민요 3곡 공개

노량진 수산·청량리·암사시장 새벽·당일·묶음 배송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구매부터 새벽·당일·묶음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량리종합시장·암사종합시장·노량진수산시장 3곳에 MFC 조성 및 디지털물류플랫폼 도입을 완료하고, 이달 22일부터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시장 빠른배송은 시장 내 MFC, 디지털 물류시스템 등 물류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시장의 주문, 배송시스템을 혁신하는 실증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전화, 수기방식으로만 주문이 관리됐다면, 이제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돼 시장 내 물류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다.

물류인프라 도입으로 시장내 주문, 배송흐름도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기존



노량진수산시장. /뉴스1

에는 상인 개인이 모든 과정을 처리해야 했다면, 앞으로 픽업, 보관, 분류, 배송 등 번거로운 작업은 물류전문기관이 운영하는 MFC에서 일괄 처리한다.

소비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면 상인은 상품을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운영인력이 이를 픽업해 MFC로 이동하고 배송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분류한다. 특히 도착지가 같은 상품은 한번에 묶음 배송이 가능해져 여러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분류 후 상품은 냉장 또는 냉동창고로 옮겨져 최대한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최종적인 배송이 이뤄진다.

배송유형도 다양해진다.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해 당일배송, 새벽배송, 묶음배송 등 다양한 배송유형이 도입되고, 모든 배송은 서울전역 및 경기도 일부까지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시장을 방문해 배달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장 배송은 배송비가 비싼 퀵이나 배송이 2~3일 이상 소요되는 택배 배송만 가능해 저렴하고 빠른배송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선 오프라인 주문에 대해 빠른배송 서비스를 지원한 후 12월부터 온라인 주문으로 빠른배송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현대적으로 재해석... 음원·MV제작

국내 유일 민요 전문박물관인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민요프로젝트: 내일의 소리를 찾아서'를 통해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향토민요 3곡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이 올해 처음 추진한 '민요프로젝트: 내일의 소리를 찾아서'는 우리소리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에서 직접 채록한 향토민요 1만8000여곡을 기증받아 새롭게 재해석하는 사업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1989년부터 만 7년

간 기록된 향토민요 음원을 2022년의 감성에 맞게 편곡했다"며 "우리의 옛 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편하게 듣고 따라부를 수 있는 요즘 노래로 새롭게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퓨전국악 장르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룹 오주하(OH!JUHA)와 협업해 '고드래퐁, 워러리 자장가, 꽃일레라' 3곡을 새로운 음원으로 제작했다.

공연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연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신청으로 온라인 20명, 현장 10명을 모집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 상수도, '안전보건경영' 인증 획득

안전한 근무환경 인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보건 분야 최고수준의 국제표준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이다.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친다.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행정과 유지관리'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16개 사업소가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10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3년이다. 본부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 인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9 | 해질 / 17:17

11월 22일 (화)
음력 : 10월 29일

수도권 날씨
7 ~ 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에콰도르, 카타르 월드컵서 첫 경기 승리... 개최국 카타르 굴욕
▲류현진 22일 귀국... 팔꿈치 재활 전념 /사진 뉴스1

▲LG 트윈스, 박동원 4년 총액 65억원에 영입
▲김민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월드컵 2연속 금메달



▲김민재, 에릭센 알베스 등과 '주목할 7인' 선정 /사진 뉴스1
▲카타르월드컵 최고연봉 감독은? 독일 플리크 90억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